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6.

발 의 자 : 강훈식 · 김병기 · 김남근
강준현 · 천준호 · 김교홍
김승원 · 박상혁 · 윤준병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·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.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,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.

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,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,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,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

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172조제1항 등)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청구할 수 있다”를 “청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46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의2. 제17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제1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범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(이하 “단기매매차익”이라 한다)을 그 범인에게 반환할 것을 <u>청구할 수 있다</u>.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·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44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3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1. ~ 63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청구하여야 한다.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46조(벌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0의2. 제17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31. ~ 63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